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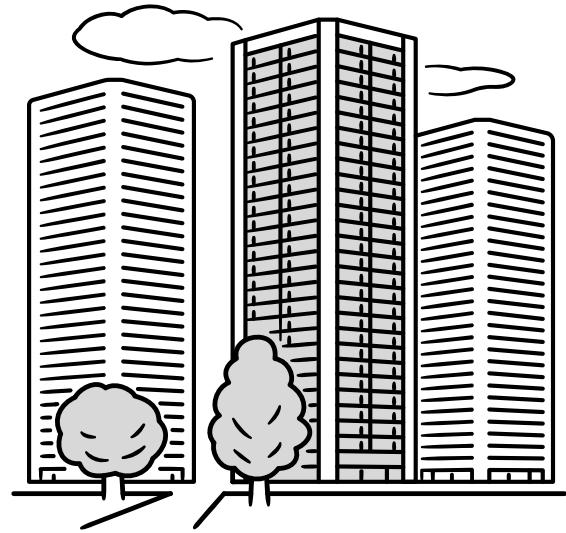
맨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분에게

맨션 방재

도쿄도에서는 약 900만 명이 맨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하 ‘맨션’이라고 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며, 20층 이상의 타워 맨션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 맨션 특유의 방재입니다.

맨션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수도가 공급되고 있어도 배수관 등의 수리가 끝나지 않은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맨션의 중고층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 고층과 지상을 오가는 것이 곤란해짐에 따라 충분한 대비가 없는 경우, 재택 대피가 곤란해진다



왜 도쿄도에서는 맨션 방재가 중요한가? 맨션 방재에 대해 알자

피해가 가벼우면 재택 대피가 가능해진다

타워 맨션은 지난 10년간 약 40%나 증가했습니다. 재해를 입은 후 맨션에 붕괴 위험이 없고 피해가 가벼우면 재택 대피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건축된 후 상당한 연수가 지난, 오래된 맨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맨션은 내진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서로 협조하여 방재에 힘쓰자

맨션에서는 막상 재해가 발생하면 각 세대의 대응과 더불어 관리조합 등을 비롯한 맨션 전체의 방재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주방재조직 등을 설립하여 대비해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맨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평소 협조 체제를 구축해 둡시다.



맨션의 ‘강점’ 과 ‘약점’ 을 알아두자!

【맨션의 강점】

내진성이 높은 구조

내진 기준을 만족시킨 맨션은 건물에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붕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유 공간 활용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거나 비축품을 임시로 두거나 합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안심됩니다.

서로 도울 수 있다

비상시에 서로 상담하고 하나가 되어 행동하면 큰 힘이 됩니다.



【맨션의 약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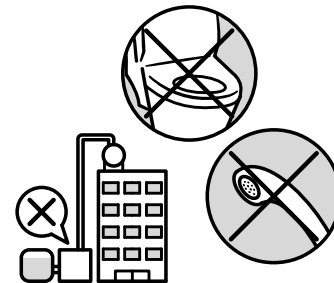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고층 거주자나 장애가 있는 분은 이동이 곤란해집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배수관이 손상되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층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아래층에서 오수가 넘쳐흐릅니다.

공용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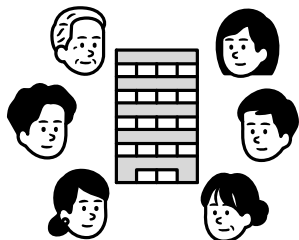
정전이 되면 조명, 기계식 주차장, 입구의 자동 잠금장치 등 공용 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맨션 전체에서 대비해 두면 좋은 것

비상시의 규칙을 정해 두자

재해 발생 시를 대비해 건물 설비 확인을 비롯하여 엘리베이터 응급 복구와 배수관 확인 순서, 거주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해 규칙을 정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평소 거주자 간에 인사나 말 걸기를 통해 얼굴을 알아두며 교류하는 것이 재해 시에도 공조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방재 창고의 비축품 · 기자재는 충분합니까?

음료수, 휴대 화장실 등의 중요한 물건은 관리조합 등에도 비축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축품 보관 장소(방재 창고)는 1곳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멈춰 선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층에 설치합니다. 재해를 입은 후 실시할 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도 준비해 둡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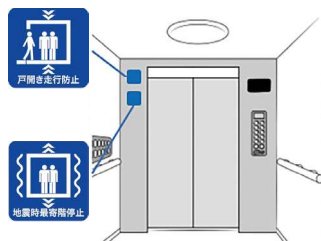
➡ 「도쿄 방재」 65페이지



엘리베이터의 안전 대책을 확인하자

엘리베이터에는 오랜 시간 갇힐 경우를 예상해 방재 캐비닛을 설치하여 물과 식료품, 휴대 화장실 등을 비축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내에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는 블루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쿄 방재」 70페이지



출처: 일반사단법인 건축성능기준추진협회
<https://www.seinokyo.jp/evs/sm/>

어디까지 대비되어 있나? 맨션 방재 체크리스트

- 포스터 등으로 방재에 대한 당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 이웃과 평소 얼굴을 알아두며 교류하고 있다
 - 비상시의 재해 대응용 공간을 정해 두었다
 - 관리조합 등에도 비축이 충분하다
 - 소화기, 발전기, 손수레 등의 기자재가 갖추어져 있다
 - 엘리베이터 정지에 대비하여 방재 창고가 몇 개 층마다 설치되어 있다
 - 엘리베이터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방재 매뉴얼을 작성하여 거주자가 공유하고 있다
 - 방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자주방재조직이 결성되어 있다
 - 거주자 명부, 배려필요자 명부가 정비되어 있다
- ※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관리조합 등에 확인합니다.



도쿄도 방재 앱의 '맨션 방재'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둡시다.

➡ 다운로드 방법은 19페이지



맨션의 특성을 알아보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맨션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대지진 시 사람이나 가구·가전제품이 넘어지고 내용물도 흩어집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 그 안에 갇히거나 고층에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그때, 그리고 그 후의 대응을 유념해 둡시다.



우선 자신과 가족의 몸을 보호한다

고층의 경우 흔들림이 커지므로 가구의 전도(넘어짐)나 창유리 파편 등의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만일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자신이 무사함을 알리고 이웃의 안부를 확인한다

상황이 진정되면 안부 확인 카드 등을 현관 앞에 내걸어 자신이 무사함을 알립니다. 같은 층에 고령자나 영유아 등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는 세대에는 노크하거나 말을 건네 무사한지 확인합니다.



집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대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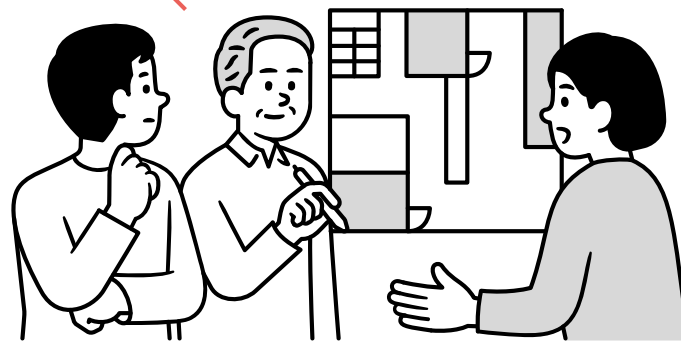
피해가 가벼우면 맨션에 머무르는 재택 대피가 가능해집니다. 그 후의 생활이 불안한 경우 대피소 등으로 갑니다. 또한 맨션 내 집회실 등의 공용 공간에 대피 장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택 대피를 하는 경우 작업을 분담하고 서로 돕자

많은 사람이 사는 맨션에서는 모두 함께 협조하면 큰 힘이 생겨납니다. 고층으로의 연락이나 물자 운반, 방법 순찰 등 거주자끼리 할 수 있는 일을 분담하여 서로 도움시다.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전달하고 가까운 대피소와도 연계하여 맨션별로 배포되는 지원 물자를 가지러 갈 때는 맨션 단위로 행동합니다.

쓰레기 집적 장소, 지원 물자 구분 장소 등 재해 대응용 공간을 만들면 원활해진다



도쿄도 방재 앱의 ‘맨션 방재’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둡시다.

➡ 다운로드 방법은 19페이지

